朝鮮日報

# 京城府廳과納稅者 權利에서지그執行範圍를擴張乎

挽近우리朝鮮사람의生活環境을察하건된어느方面에던지缺陷아닌곳이업스며어느方面이悲哀아닌곳이업더라 이러한現象은昨年보다今年이尤甚하며昨日보다今日이尤甚하다 換言하면一般的으로富한者가貧한者로貧한者가飢하는者로變態하는程度가昨年보다今年昨日보다今日에累進的原則에依하야增加된다는것이다 이것이朝鮮사람의一般的生活의環境을表證하는現象이다 이와갓튼現象에演出하는背景에반드시그動機가되는生活保障에對한缺陷이存在함을認識하지아니할수가업다 이缺陷으로붓터發生하는生活難의모든悲哀를除却하고싸라셔安全한生活을圖謀할야면根本的缺陷으로붓터그生活을保障함에在하다한다 社會는各個人의生活을保障함으로붓터各個人은社會에對한報酬를提供하는것이다 各個人의社會에對한報酬는그社會의保障으로말미암아各個人의生活이安定된後에야반다시그效果를奏할것이다

우리朝鮮사람의生活은缺陷이만 ……

…… 하면更히그範圍를擴張할곳은何에잇는가 이며쓰納稅에主體된者는누구인가 吾人의此言이너무나極端의辭가잇다할者도不無하리라 그러나現實에서生하는現象으로將來를推察하건된決코以上에論斷이過言이아님을自信한다

그러면如斯한現象이各個納稅者의義務不履行에서出來함이아니오 그들의生活難으로因하야履行의能力이缺乏된所以라하며此에對한救濟의策은오직納稅者의生活을保障하야그들의納稅에對한能力을助長시키며에在하다하고 ……

# 國際勞働運動史 (一〇)

# 資本主義社會의學術的考察 (二九)

# 加奈陀의獨立問題 (二)

五、對米關係와加奈陀의地位

# 막쓰學說의梗槪 (七)

上海에서 新島

## 小說 夢中夢 (十五)

朴永德 譯述

「어이! 법석 어엉 생서 앗께가 되는구나 참 홀륭하다 너가 돈 저 조가 조선의 논 업슬가보다」

「하々々무엇이오 그러치도 못합니다」

「그러면 너보다 더 나흔 사람이 또 잇단 말이냐」

「엇고 맙고 요 저 얍은 어림도 업습니다」

「흥! 어림도 업다 그러케 못 그린 돈이 잠 성길나고 그러나 그림은 얼마의 마든것이냐 적어도 몽빗원은 될걸 또는 너의 내외가 마주안저 그러서 돈을 벌게 되니 참 자미잇슬 일이다」

「그러나 재처가 그리는 그림이야 그러케 쉬웁게 돈이 됨니까」

「그러트위도 시방 그리든 저 그림도 못안나면 곳 돈이 생길것이지」

「네 다소 자섯기겟지오」

「네 그림에 비하면 까기야 하겟지만은 너 저 네가 단돈 얼마든지 버는 사람이 그러케 귀곱게 잇나 너의 처야 그저 잡자붓터 물풀고 극적극적하면 밋실원씨 솩솩 성기지안는냐 마리지 참 너는 조혼안악을 두엇다 걸물도 잘 성기고 게다가 돈싸지 버니 하하」

「글새올시다」하면서 동황이는 붓서를 움즉이며 자이 부친의 어리엄는 말에 웃고잇다

「악가 저리々 병풍을 보고 그리올 그리랴나 보는데 재가 져린데라도 넉넉히 그리기」

「그리고 말고요 엇지하면 저보다 더욱 잘 그리는지도 모로지요」

「흥 그러면 그러가지고 얼마나 밧노」

「인재 그 병풍은 「던람회」에 출품할것이랍니다」

「던람회? 던람회가 무엇하는데야」

「그림 벌녀놋는데야요」

「왜 그림을 벌녀놋노」

「왜 아바님 넌전에 공진회라고 구경하시엇지요」

「그래」

「그더 공진회처럼 그림을 벌녀여 놋코 남들의게 구경을 식히지요」

「그러면 던람회에 나아가면 돈이 성기나」

「되고말고요 팔이기만하면 한 삼빅원 밧을걸이요」

「하하 삼빅원? 누구던지 삼빅원을 니고 사가는구면」

하며 미우 놀나는듯이 머리를 혼드럿다

「엇저곳 홀풍하다 하병에 오원자리 금림 그리는 약을 마시여도 너々하겟다」

「하하하 저처가 오날 아버니에 치찬을 막듯숨니다 그려」

「아 정말이다 너는 조혼안악을 두엇다 그런티 말을 드르닛싸네 처가 시골사람니라니 정말이냐」

「그러함니다 시골이라고는 하지마는 얼마 안이되지요」

「엇지든 너는 행복자이다 아하하하 그러나 이의 동황아 너하고 좀 의론할 말이 잇다」

(二十)

동황의 부친 주씨는 자리를 고쳐 안즈며 「좀 의논」할 말이 잇다고 한다 동황이는 그의 말을 듯지 안이하야도 그 의론하겟다는 말을 안다 그러나 아모 생각업시 지니이가는 말과 버젓하게

「의론은 무슨 의론이십닛가」하얏다 노인은 동화의 암호로 다이 안즈며

「다른것이 아이라 요전의도 말을 하얏거니와 그 징실이의 저산 말이다」

「그 저산을 엇잔단 말삼입닛가」

「너의 물이 가지고 잇스면 되는터로 막우 써버리기가 쉬운법이 안이냐 그러나 어느 론돈한 자의게 놉혼 리자로 빗노어 한심 더어고 어아비의게 막기여다고」

「리자가 얼마나 놉혼지는 모르지요마는 아바니는 돈돈히 시지 못 …」

「애々 기 첩업는 소리 고만 헤라 참말이지 미슨이 오기만하면 사슨일에 조선에는 재인 돈돈치다 고하더라마는 그보다 멋히 더 돈돈하지 상년만 지니이여 한 저산을 빈드러줄 것이니」

「하々々 한삼년동안에 갑절을 빈드시다니 참 훌융하십니다 더처 엇더케 하시면 그러케 됩닛가」

「그야 내의 견것 돈을 느러는 것이닛가 너한테는 말을 하야도 소용이 업다」

「엇더케 하세요 빗도이 물하시랍닛가」

「빗도이를 하라면 남듯기에 맘서 사나 뵈어지 안느냐 역시 은힘의 셔하는 입을 나혼자 지민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닛가 역시 빗도이입니다 그려 저는 불찬성합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오춘곡은 인넌이 고리대금을 하더라고 하면 그는 만양이 되엿슴닛가」

## 仁川學議有權者
### 今期는 五圓以上乎

仁川府에서는 方今學校評議員有權者資格을 調査中인데 이에 對하야 當局者의 談에 依하면 前番選擧期即大正九年度에는 學校費負擔額이 極히 僅少하야 規定額五圓이 不得已 一圓以上納稅者를 有權者로 하엿서도 有權者가 겨우 七十四人에 不過하엿는데 今期에는 負擔金額이 訛히 增加되야 前期와 如히 一圓以上으로 하면 有權者가 三千人以上에 達할지며 定規인 五圓以上으로 할지라도 三百人쯤은 될터이니 何如間 選擧局에서는 規定에 依하야 規定대로 施行하기가 容易하리라고 말하더라(仁川)

## 佛敎振興會設立

佛敎가「慈、悲、喜、捨」로써「利樂衆生」하는것이 그本旨이며「不辱、解脫」로써「入世間、爲行化」하는것이 그敎法이어늘 그동안 [illegible]歲月로 山間에 竄遂되여 出世를 不得하며 自然히 獨善的 默世的가치되어버려 그恩澤이 普給되지 못함은 누구나 다 痛嘆하는바이지만은 特히 忠南德山人士들은 이에 切實한 感覺을 有하야 今夏以來有志間에 多般討議하던 結果 佛敎振興會를 組織하야 位置는 當地報德寺라 하고 去八月二十日에 發起總會를 經過하고 九月三十日에 第一回總會를 開하야 規則通過、任員選定等을 處理하엿다는데 그會의 綱領은 佛敎를 通俗化하며 實用化하자는것이라 하며 그任員氏名은 如左하더라

會長 命顯相 副會長 林潤基 顧問 命弘濟 幹事 高斗鉉 命礎宗 評議員 金重丕 命性卿 池正回 李根實 高雲慶 命仁權 李重式 張柄植 朴敬禹 申錫文 (禮山)

## 中文少年會創立總會

濟州島漢南에는 少年들의 集合團體가 업서서 修養上莫大한 遺憾이던中 今般에 左面中文里居少年康錫萬、林漢裕氏外數人의 發起로 中文少年進會를 創立하얏는데 智德體三育의 發達을 圖謀키 爲하야 智育部에서는 每月에 二三次式討論會講演會를 開催하며 體育部에서는 各項運動具를 購入하야 每日曜日에 運動會를 開催하기로 決議하고 當日選定任員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

會長康錫萬、總務林漢裕、幹事金機濱、高應晨、元基榮、書記林漢俊、李云得(濟州)

## 普通學校上樑式

利川公立普通學校는 近來敎育熱을 따라서 學徒가 漸々增加되야 敎室이 狹隘함으로 去八月부터 二層洋屋으로 宏大히 建築하는바 去九月午後二時에 上樑式을 擧行하얏는데 寫眞의 撮影과 拾餅의 餘習이 有하야 人山人海에 大盛況을 成하얏더라(利川)

## 無理한 請負業者

利川公普校新築工事에 對하야 木工이 全部罷業하얏다는데 其事實을 探聞한즉 請負業者가 雇價를 支拂치 아니한 까닭이라더라(利川)

## 溫泉場에 電燈照耀

去十日부터 開催된 釜山水產共進會를 期하야 東萊溫泉場에서는 入浴客을 歡迎하기 爲하야 溫泉繁榮會主催로 溫泉場入口부터 始作하야 全街에 電燈數百座를 懸褒하얏다더라(東萊)

## 仁川時評

仁川支局 時評子

□□□□

現今社會에서나 青年間에나 누구를 莫論하고 筆로 또는 口로 社會를 改造하자 家庭을 改革하자 하며 또한 講演場에나 討論場에 가면 恒常男女問題가 其大部分의 討議問題가 되여잇다 그뿐안이라 又는 某新聞紙上에나 雜紙等의 報道論評한것을 볼지라도 社會改造와 家庭改革問題가 中心이 되여잇는데 이 問題가 熾烈하야 집을 따라 男女間에 對한 모든 問題가 亦是 惹起되여진다 그것은 우리 現社會에 잇서서는 當然하다 當然한 뿐안이라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只今보다 더 一層窮究하고 論評하야써 其間에 滿한 解決을 엇지안으면 안될일이다 大凡國家社會民族무엇々々하는것이 有意味하고 그것이 隆昌케되는 原動力이란것은 家庭에 잇스며 이 家庭이 또한 그갓흔 意味잇는것이 되는 根源은 家庭을 組織한 男女에게 掛한것은 嫩々히 說明을 要치안이하고 確知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이 모든 問題를 解決코자 함에는 第一먼저 家庭의 組織인 男女問題가 重要한 根本問題이다 그러나 今日朝鮮社會의 組織體인 家庭을 보면 不然하야 男女의 背馳 衝突彈駁等事實로 其半穩함을 不知하는 家庭이 太半이다 그러나 그것은 如何한 原因인가 하면 大槪男子가 女子를 排斥함에서 由한다 卽男子는 社會의 物情을 알고 時代의 思潮를 理解하나 女子는 反對로 아모것도 모르는 肉塊가 흡으로 思想의 衝突과 理解의 背馳도 됨이니 此는 無他라 女子에게 敎育이 無한 緣故이로다 然하면 女子에게 敎育만 有하면 이는 現象을 超脫하야 家庭다운 家庭 社會다운 社會가 될것임도 亦時評子가 論하지안이하더러도 아는바이다 然이나 舊家庭의 婦人은 失期한 所致로 有意莫逐하야 恒常悲劇의 主人公이 되여잇는것이 不知其數이엿다 仁川에서는 此舊家庭婦人과 事勢의 不許로 就學치못하는 婦女를 爲하야 女子엡웟青年會主催로 牛角里永化女子普通學校內에 婦女夜學을 開催하야 발서 半個年이나 熱心으로 敎育하야 優秀한 成績을 擧하는 中이라 한다 時評子가 此消息을 聞하고 滿腔의 贊意를 表하지 안을수 업다 잇서 것을『모름』으로 因하야 人生의 待遇를 밧지 못하고 男性에게 餘地업시 蹂躪을 밧던 婦女諸位도 此壯擧로 因하야 生道를 得하야 男性의 無理한 行動에 反抗할수잇스며 또한 理想에 適合한 家庭을 形成할수잇게 되엿도다 此에 對하야 最後로 一言을 呈하야 此를 主催한 幹部一同의 誠意와 誠熱을 謝하며 다시 一百七十三人學生諸位의 『[illegible]』한 熱誠과 『줄기찬』 努力으로 遠大한 目的을 貫徹하야 理想의 實現을 보게하라 이! 婦女諸氏여! 『살림』의 餘暇에 育兒의 餘暇에 비호라? 또한 閑談할 時間에 睡眠의 餘暇를 利用하야 『비홈』의 『생』으로 모되여 生命水의 智識을 受하라

□□□□

時評子가 向日 엇던 會에 參席하엿다가 엇던 兩班의 高明한 卓說을 드럿다 그것은 某洞里에 對한 將來方針을 말하는 坐席인데 其洞里代表者 한분은 말삼하시되 『本洞里는 元來부터 洞契가 잇는데 이것은 그 洞里에 잇어나는 不意의 財源에 쓰고저 함이라 그런데 現今은 도모지 이것을 贊同치 안이한다고』 報告가 잇은後 뒤를 繼續하야 말하되 『近日은 青年이며 오長者를 凌蔑히 역이여 反抗하고 凌辱하는 弊端이 잇스니 이것은 都是 風紀가 墜落한 所致라 故로 風紀肅正을 根本으로 하지안이하면 到底히 洞里를 거느리기가 極難한데 이것을 圓滿히 實行코저하면 不可不 人民이 하는 警官의 『힘』을 빌지안이 可하다』는 卓說을 말하더라 君이여! 君이 엇지하야 [illegible] 代나 寺內總督時代에 風紀肅正을 行치못하엿스며 補助員時代에 치못하얏는가? 只今은 文化權化라고 하는 齊藤時代이니 [illegible] 를 휘둘으는 寺內를 甦生케하며 長谷川氏를 다시 朝鮮總督으로 하게하라는 陳情書나 運動을 하엿더한가? 그러기 前에는 君이 風紀肅正에 對한 主旨를 貫徹하기는 어려울것이다 안으면 君自身이 巡査가 되여 君의 洞里의 風紀를 正肅함이 便일가 하노라 君이여! 君이 [illegible]를 爲하야 盡心竭力함은 致賀[illegible] 러나 君이 現世가 엇더한지를 [illegible] 못하고 如此히 官僚時代로 [illegible] 저하는 時代錯誤의 思想을 가[illegible] 哀哭하는바이다 現今은 이[illegible] 權者라도 無權者를 壓迫하는 [illegible] 가안이오 治者라고 被治者를 [illegible] 는 時代가 안인것을 모로는가 [illegible] 爲하야 時評子는 哀哭三拜하[illegible] 醒하고 覺醒하야 舊脫을 벗[illegible] 모든것을 考察할지어다

## 扶安公校運動盛況

全北扶安邑內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十日에 秋季大運動會를 擧行하얏는바 參加한 學校는 『扶安扶西公普校、同白山公普校、同茁浦公普校、金堤禾湖公普校、同禾湖公小校以上五個學校와 邑內二個學校合七個學校의 生徒數가 一千四百餘名에 達하는 一大盛況裡에서 六十餘種의 競技를 마친後 優勝旗授與式을 擧行한바 各學校의 競技成績은 白山學校가 良好하야 優勝旗를 奪取한바 授與式이 끗나자 該校々長으로부터 閉會辭가 잇슨後 同午後五時半에 無事閉會하얏는데 各學校의 成績點數는 如左하더라

| 學校 | 點數 |
| --- | --- |
| 扶安小學校 | 七、五點 |
| 白山公普校 | 二七、五點 |
| 茁浦公普校 | 二、五點 |
| 禾湖公普校 | 一、五點 |
| 禾湖小學校 | 一、五點 |
| 扶西公普校 | 一、五點 |

(扶安)

## 有吉總監來釜

有吉總監은 九日午後七時五十分釜山에 到着하야 鐵道호텔에서 一泊하고 十日水產共進會開催式에 臨席하고 다시 同夜連絡船으로 渡航하얏다더라(釜山)

## 一盃酒로 一斗租加徵
### 元山起洑組合에서

元山起洑組合은 從來十餘年前부터 元山富豪者의 發起로 安邊郡培花面鶴城面一部水田을 中心으로 하야 組織된바 該洑區域內地主는 每斗落正租二斗式을 徵收하야 豐足한 收益을 每年配當하야 다먹어바리고 不幸히 今年水災에 同洑等이 砂減됨으로 明年에는 多大한 經費를 要치아니치 못할것을 預想하고 去月二十七日에 培花面水麗里東山에서 酒肉을 設備하고 該洑區域內地主를 招待하야 該洑理事某가 地主를 向하야 明年부터는 每斗落에 洑稅正租一斗式을 加捧하야 달나는 演說을 試하얏다 次에 地主側에서는 고기와 술을 먹여노코 增稅하야 달나는것은 無理한것이라고 絶對로 反對하얏슴으로 該洑組合員一同은 希望하던 計畫이 고만 失敗에 歸하야 酒肴만 虛費하얏다더라(安邊)

## 十九回總會

全北鐵道株式會社에서는 來二十日午後一時부터 第十九回定期總會를 同會社內에서 開會한다더라(全州)

## 高敞倅의 熱心獎農

全北高敞郡은 元來農產地로써 他地方으로 輸出租가 十餘萬[illegible]에 達하는바 一般農民의 稗拔觀念이 [illegible]한 所致로 販賣時에 等級上 多大한 [illegible]가 有하더니 木郡守金[illegible]鎬氏는 [illegible] 苗付植時期부터 稗拔을 熱心獎勵하야 發穗時期를 利用하야 四五次 親自出張하야 稗拔을 督勵하며 郡職員諸氏가 分擔出張하야 [illegible] 督勵한 結果 今年本郡所產租에 對하야 一毫의 遜色이 無[illegible]

## 戶籍令事務講習會

高城郡新北面溫井里金剛小學校에서 本月八日부터 九日々지 講習會를 開催하얏는데 通川、高城合十二面書記十二人을 招集하고 講師는 咸興地方法院元山支廳監督書記荻延武也氏가 朝鮮戶籍令의 解說、朝鮮戶籍令施行手續解說、戶籍事務取扱規則說明、其他戶籍事務에 關하 討議가 有하얏더라(高城)

## 博愛少年團發團式

本月六日下午八時부터 蔚山郡蔚山面江亭禮拜堂內에서 團長李龍雨氏의 司會下에 開催된 發團式을 行하얏는데 團員의 瀏亮한 樂聲歌曲과 來賓의 祝辭와 團員의 雄辯이 잇섯스며 餘興으로 素人劇二幕을 興行하얏는데 觀覽者三百餘名에 達하고 滿場拍手裏에서 大盛況을 呈하고 同十一時半에 閉會된바 其演題及演士는 如左하더라

一、一同讚頌祈禱
二、團長의 開會辭
三、現代流行俗曲唱歌及音[illegible](바이오링)(橫笛)
四、우리의 要求(田錫佑)
五、守舊者의 反省을 하라([illegible])

(蔚山)